

가볍게 다가와 묵직하게 머무는 말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에게 말로써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풀릴 수 있다. 농담인 것 같았는데 슬며시 묵직한 진심으로 다가오는 말. 그 말은 살포시 머물다가 오래도록 떠오르며 새록새록 큰 힘이 된다. 비로소 동료의 진정한 동료가 되어가는 것이다.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수

밥 먹고 합시다!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힘을 보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말 한마디를 잘 고르는 것이다. 객관성에 근거한 최상급의 칭찬 이어도 좋고, 자신을 낮춰서 높여주는 방법도 있다.

“OO씨 때문에 우리 팀이 회사의 브레인집단이라고 소문났잖아요.”

“바쁘시죠? 지금부터 1시간 저는 당신의 잡부입니다! 뭐든 도와드릴게요.”

“상황이 더 어려울 때도 잘 해내셨잖아요. 이런 일은 가볍게 잘 해내실 거예요.”

친한 사이라도 어렵고 괴로울 때 도와준답시고 자꾸 캐묻기보다 그냥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기분 전환되는 일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하고 감동한다. 평소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기분도 기운도 없어 보이는 동료가 있다면, “이따 별일 없으면 점심 같이 먹어요. 할 게 많아도 일단 먹고 생각하자구요”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 말 자체로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거기다 밥값까지 낸다면 기분만 좋

음을 넘어서 뭔가 ‘아 이 사람....’ 하며 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자네라면 잘할 거야.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힘들지? 일이 늘 노력한 만큼만 잘 되면 자네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직장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힘든 일은 늘 있더라고. 힘내!” 이렇게 권위적인 느낌을 덜어낸 말들은 좀 길어도 좋다. 잔소리라도 따뜻하고 편안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일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좀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하소연이나 투정 섞인 푸념을 할 때 이성보다 감성으로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어떤 올바른 조언보다 훌륭하다.

나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외로운 인간’이 있다는 점을 알고,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외로운 인간'을 아는 체하라고 한다.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 '외로운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적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영해서 그 마음을 읽어주라는 것이다. 설령 그 감정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말로 읽어주어야 한다.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우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하며 '....라고 생각하시는군요'라고 말하면 된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동료라고 해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양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허세나 허풍이 센 사람일수록,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외로 약한 사람일 때가 많다. 그 마음을 읽어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화들짝 놀라 민망해하는 모습을 안 보려면 먼저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하다. 겁 많은 나, 나만 아는 실수인데도 잠 못 이루는 나, 익숙한 일도 처음처럼 보일 때 실수하는 나. 보여줘도 괜찮은 나를 보여준다.

사람은 모두 '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도,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하고 완전해 보이는 상사도,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하여 인정받는 인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 약한 부분이 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서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세워진 벽에서 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두드리자.

진심이 담겼습니까?

인문학 서적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드라마라는 극찬을 받았던 <나의 아저씨>는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다. 어려운 형편에 할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는 여

주인공에게 남자주인공은 앞뒤 없이 이렇게 말한다. "착하다." 남자가 돌아간 뒤에서 한참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 듯 '착하다...착하다...착하다'는 하는 말이 자꾸 맴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들은 그 짧은 말이 여주인공에게만큼 시청자들에게도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짧은 말의 힘이나 흔한 말에 무개가 느껴질 땐 신비로운 면이 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느껴지는지 정확히 뉘앙스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마음이 실려 있는지 아닌지의 미세한 차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잘 잡아낸다는 점이다. 특히 칭찬은 가장 손쉽게 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다. 칭찬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기분이 좋지만 우리에게겐 아직도 인색한 부분이다. 목적을 가진 칭찬이나 형식적인 칭찬을 다섯 번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진심 어린 칭찬 한 번의 효과가 더욱 크다. 그렇게 하려면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나 특별한 날 상대에게 안부를 묻거나 축하의 말을 건네는 일은 평소에 하기 좋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생일 카드 같은 전통적인 인사법을 이용한다면 받는 사람은 더욱 오래 나를 기억할 것이다.

자주 하는 말, 자주 하는 행동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처음 만나는 중요한 사람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도록 노력한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늘 활력 넘치게 인사하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TTA